

언처치드, '예배 초대'보다 '지역 봉사(행사)' 통한 교회 초대가 더 효과적!

미국의 목회 전문 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가 발표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Unchurched Report, 2016)은 6개월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언처치드(Unchurched)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빌리그래함 전도센터와 협력하여 수행된 전도 관련 조사로, 비록 조사 시점은 오래되었으나 오늘 교회가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주제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상태에 있는가'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넘버즈에서 다루고자 한다.

조사결과, 언처치드 75%는 과거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었다. 또한 언처치드의 절반 가까이는 신앙 대화 요청 시 기꺼이 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교회 초대의 문을 여는 계기로는 예배보다 지역 봉사(행사) 같은 공공선 기반 접촉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넘버즈 309호>에서는 언처치드의 인식과 특성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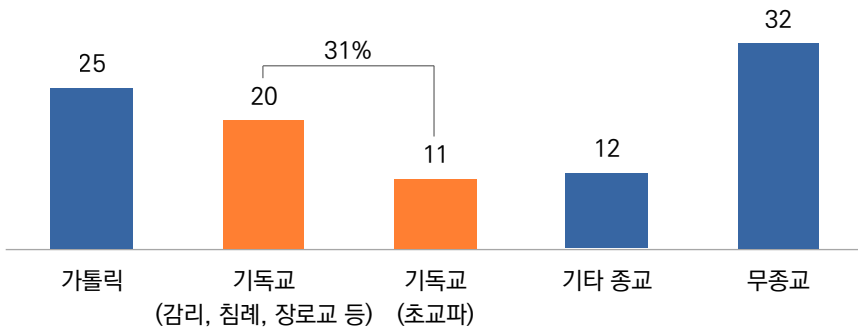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언처치드(Unchurched) 일반 특성]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미국인 31%가 선호 종교로 기독교 선택!

-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지난 6개월간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자신의 종교 선호도를 묻은 결과, '가톨릭'(25%)이 가장 높고, 이어서 '기독교 전통 교단(감리, 침례, 장로교 등)'이 20%, '기독교(초교파)'(11%)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자신을 무종교인으로 간주하는 비율은 32%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그림]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미국인의 종교 선호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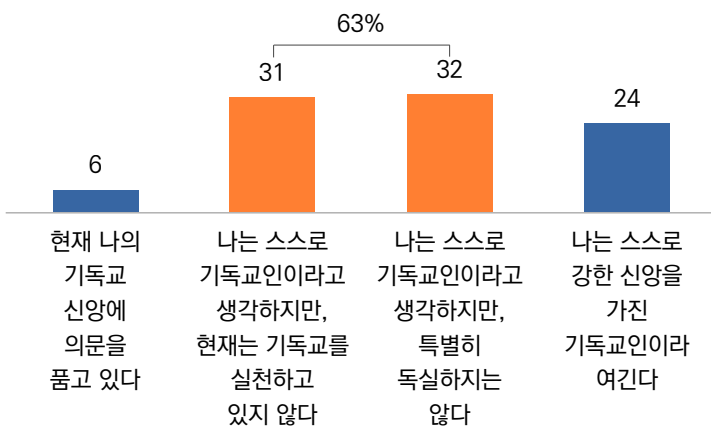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Note)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미국인은 이하 '언처치드(Unchurched)'로 용어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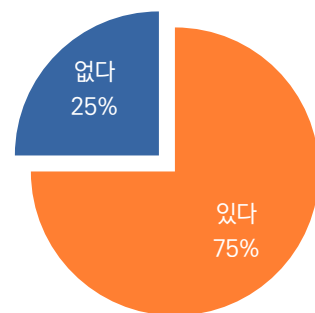
언처치드 75%, 한때 교회 정기 출석자였다

-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인식하는 이들 중 63%는 '비실천적·비독실 신앙' 범주에 속했다. 언처치드 3명 중 2명 가까이가 기독교 정체성은 유지하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룹이었다.
- 한편, 언처치드 4명 중 3명(75%)은 과거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처치드(Unchurched) 그룹이 처음부터 교회 밖에만 있었던 집단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현재 자신의 신앙 상태*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선호하는' 교회 비출석 미국인, %)



[그림]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 경험 (교회 비출석 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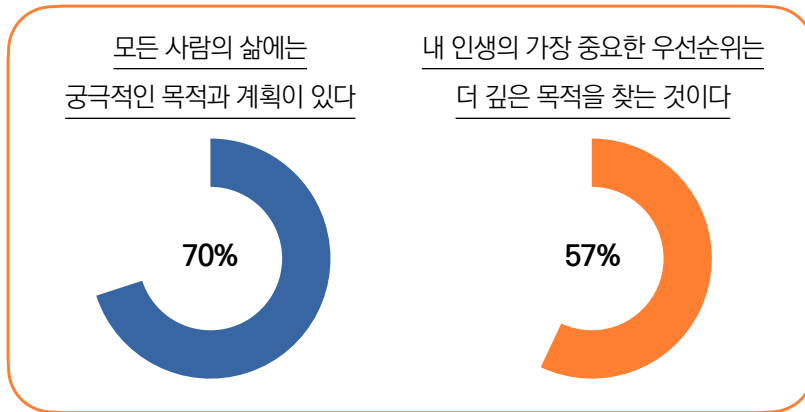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확실하지 않음(Not sure) 응답은 제외

언처치드의 57%, 교회 밖에 있지만 스스로 삶의 의미와 목적 탐색 중!

-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언처치드(Unchurched) 10명 중 7명은 '모든 사람의 삶에는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더 깊은 목적을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둔 이들도 57%에 달했다.
- 이와 같은 데이터는 언처치드가 교회 혹은 종교 외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향한 스스로의 탐색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그림] 삶의 의미/목적 인식 (교회 비출석 미국인, '매우+약간 동의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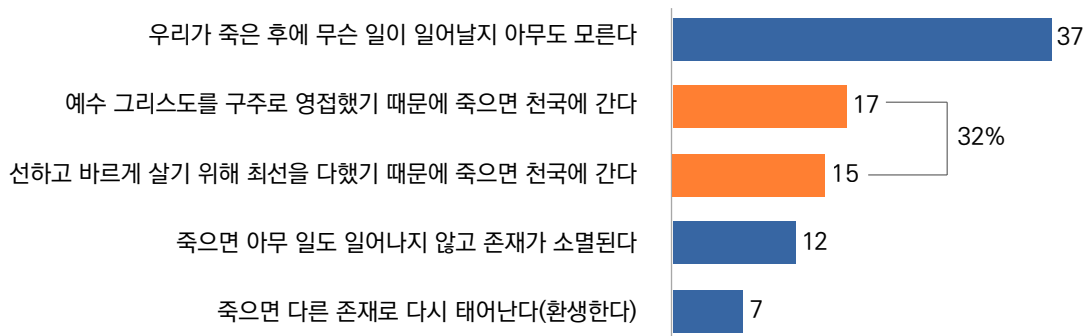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4점 척도

언처치드 3명 중 1명, '죽음 이후 천국 간다!'

-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언처치드(Unchurched)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우리가 죽은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37%)는 인식이었다.
- 한편 '천국에 간다'는 인식도 나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17%)과 '선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15%)로 인식이 갈렸다. 전체적으로 언처치드의 1/3(32%)이 사후에 천국에 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이는 언처치드 인식에서 기독교적 요소뿐 아니라 비기독교적 인식도 혼재하는 '혼합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사후세계 인식 (교회 비출석 미국인,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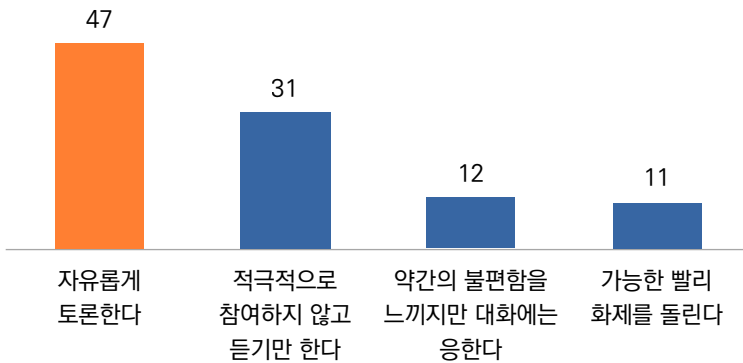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02

[신앙·교회·기독교인에 대한 인식] 종교 관련 대화 요청시, 언처치드 절반(47%)은 ‘자유롭게 토론’!

- 종교에 대한 대화 요청을 받았을 때, 언처치드(Unchurched)의 절반가량(47%)은 ‘자유롭게 토론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31%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듣기는 한다’고 답해, 전체적으로 수용적 태도가 회피보다는 우세했다.
- 이는 언처치드가 반응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신앙적 대화에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종교에 대한 대화 요청 시 반응 (교회 비출석 미국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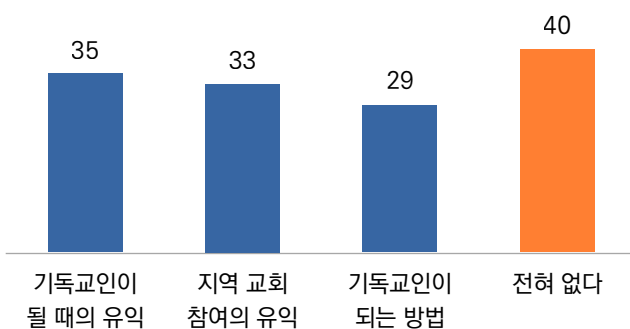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언처치드 40%, 기독교인으로부터 신앙적 대화(교회 초청) 경험 '전혀 없다'!

- 기독교인으로부터 1:1로 신앙적 대화 또는 교회 초청을 받았는지 묻은 결과, 언처치드(Unchurched)의 40%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언처치드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으로부터 신앙적 대화 접촉 경험조차 없음을 보여준다.
- 반면 '기독교인이 되는 유익'(35%), '지역 교회 참여의 유익'(33%)을 개인적으로 들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각각 3명 중 1명꼴이었다.

[그림] 기독교인이 개인적으로(1:1로) 신앙을 공유한 경험 여부 (교회 비출석 미국인,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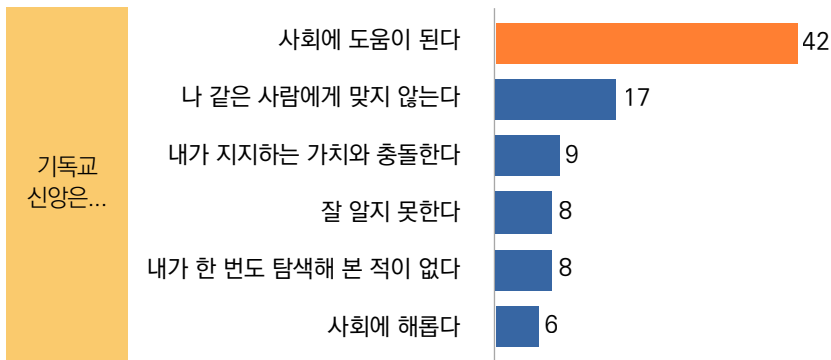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언처치드 42%, '기독교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

- 언처치드(Unchurched)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인식을 묻은 결과, '기독교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가 4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사회에 해롭다'는 응답은 6%에 그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소수에 그쳤다.
- 한편 '나에게 맞지 않는다'(17%), '잘 알지 못한다/탐색해 본 적 없다'(각 8%)는 응답도 나타나, 언처치드의 기독교 인식은 '거부'보다는 '거리감과 무관심'이 더 큰 상태임을 보여준다.

[그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인식* (교회 비출석 미국인,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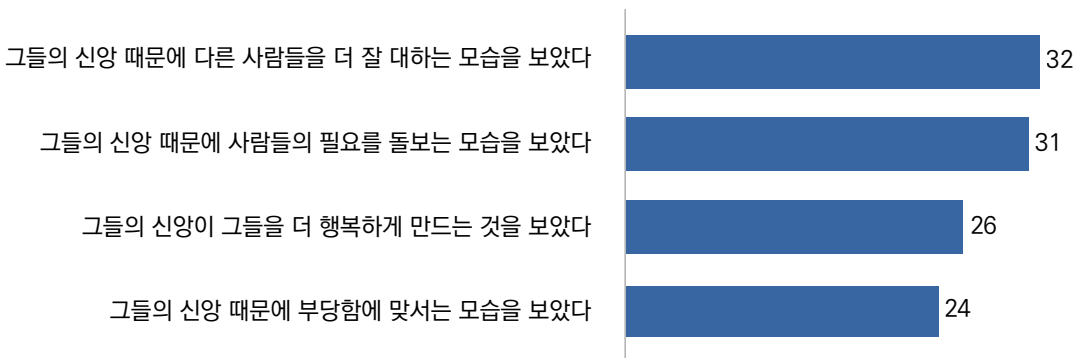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해당없음, 잘 모르겠음 응답은 제외

언처치드의 기독교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 '신앙이 삶으로 드러날 때'!

- 언처치드(Unchurched)들이 기독교인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신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대하고'(32%),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며'(31%), '부당함에 맞서는 행동'(24%)을 본 경험이 기독교에 대해 언처치드 관심의 문을 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앙이 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모습'(26%)도 언처치드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도의 출발점이 단순 메시지 전달보다, 삶에서 드러나는 신앙적 모습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기독교인의 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 (교회 비출석 미국인, 중복응답,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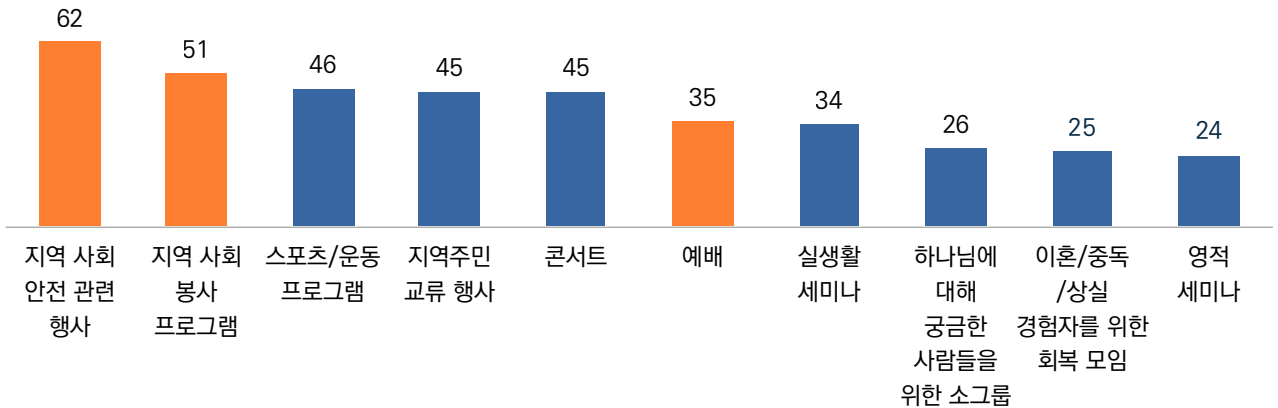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03

[교회로 향하게 만드는 계기와 전략] '예배 초대'보다 '지역 봉사(행사)' 통한 교회 초대가 더 효과적

- 이번에는 지인이 지역 교회가 주최하는 활동에 초대할 경우, 언처치드의 참석 의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 가장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역 행사'(62%)와 '사회 봉사'(51%) 같은 공익 기반 활동이었다. 반면 예배(35%)· 신앙 소그룹(26%)· 영적 세미나(24%) 등 직접적인 종교 활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종교적 메시지보다 지역 사회를 위한 실천 중심의 접근이 초대의 문을 여는 데 더 효과적임을 말해준다.

[그림] 교회 주최 활동에 초대받을 경우 참석 의향 (교회 비출석 미국인, '매우+약간 참석할 가능성 있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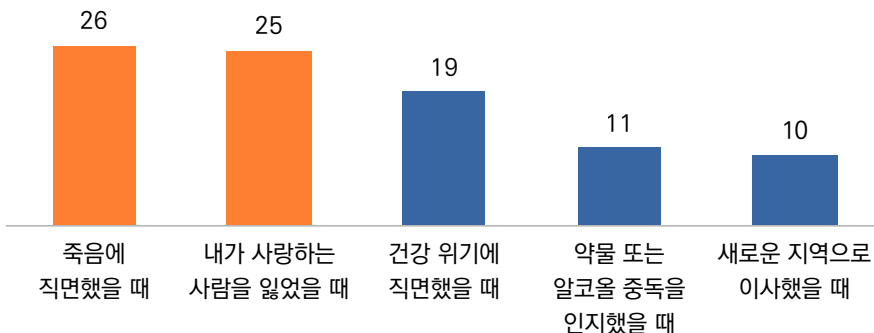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4점 척도

언처치드, '죽음/상실'의 위기에서 교회의 도움 요청할 가능성 높다!

-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이 중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높이는 삶의 경험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언처치드 들은 '죽음과 상실'과 관련된 극단적 위기 상황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구체적으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26%)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25%)를 가장 많이 꼽아, 이들이 삶의 근본적인 의미나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질문에 직면했을 때 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어 '건강 위기에 직면했을 때'(19%),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을 인지했을 때'(11%)가 뒤를 이었다.

[그림] 교회에 도움을 청할 가능성을 높이는 인생 경험 (교회 비출석 미국인, 복수응답,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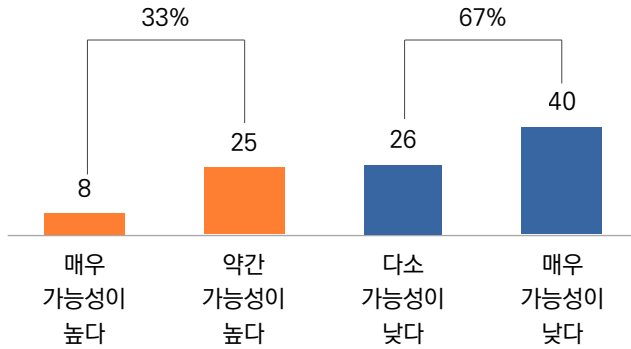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언처치드 3명 중 1명(33%), 향후 교회 정기 출석 ‘가능성 높다’!

- 앞으로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할 가능성을 묻은 결과, 언처치드(Unchurched) 3명 중 1명꼴인 33%가 ‘가능성 높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회의 꾸준한 관계 맺기와 초대가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다만, 응답자의 2/3에 해당하는 67%는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해, 교회 출석에 대한 거부감과 무관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림] 향후 정기적 교회 출석 가능성 (교회 비출석 미국인, %)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리포트(Unchurched Report), 2016.06. (지난 6개월간 종교 기념일(예: 부활절)이나 특별한 행사(예: 결혼식, 장례식)를 제외하고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16.05.23.~06.01.)

이번호 요약

1. 언처치드 75%, 한때 교회 정기 출석자였다!

-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미국인(언처치드) 4명 중 3명(75%)은 과거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처음부터 교회 밖에만 있었던 집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예배 초대'보다 '지역 봉사(행사)' 통한 교회 초대가 더 효과적!

- 지인이 지역 교회가 주최하는 봉사활동(행사)에 초대할 경우, 언처치드의 참석 의향이 가장 높은 것은 '지역민을 위한 행사'(62%)와 '사회 봉사'(51%) 같은 공익 기반 활동이었다. 반면 예배(35%) 등 종교색이 직접적인 초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3. 언처치드, '죽음/상실'의 위기에서 교회의 도움 구할 가능성 높다!

-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높이는 삶의 경험으로는 '죽음과 상실'과 관련된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26%)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25%)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통하는 전도 (문승진 저/도마의길)

관련 성경 구절

...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b)

목회 적용점

이번 언처치드 분석 결과는 언처치드의 상당수(75%)가 처음부터 신앙이 없던 외부인이 아니라, 과거 교회 공동체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교회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이기보다는, 예배 중심의 직접적 초대에는 낮은 호응을 보이나, 교회의 '지역민을 위한 행사'나 '사회 봉사' 같은 공익 활동을 통한 접촉에는 높은 참여 의사를 보인다.

이는 교회가 '잃은 양'을 되찾고 '외부인'에게 다가가기 위해 전략적 전환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교회의 역할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지역 사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웃을 돌보는 안전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 현장에서의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삶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치유 공동체 구축이다. 언처치드가 교회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간은 '죽음, 상실, 건강 위기'와 같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장례 지원, 건강 상담, 중독 치유 등 위기 개입 사역의 전문성을 높여, 그들의 고통에 신앙적 위로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관계와 봉사'를 매개로 한 접촉 사역 강화이다. 직접적인 예배 초대를 고집하기보다, 지역 사회가 인정하는 실질적인 봉사 활동 또는 지역민들을 위한 행사를 통해 언처치드와의 신뢰 관계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 '봉사는 곧 복음의 행위적 표현이기 때문이다.'